

##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비전2000 “새벽부터 우리...”

### 매일 새벽 전도훈련... 오늘은 교구별 전도

비전2000기간 중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 체계적인 개인전도훈련이 진행되어 성도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1층 예배실에서 이중윤 목사를 강사로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핵심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 특히 1주일 단위로 교재를 배포하고 이를 중심으로 성경암송, 주간숙제 등 과제가 부과된다.

첫 주인 지난 주간 동안은 ‘구원의 확신’을 주간숙제로 하여 매일 관련 주제

를 하나씩 다루었다. 이 전도 훈련은 비전2000 기간 동안 계속 진행된다.

한편 교구별 노방·축호 전도가 오늘 I·II·III부 예배 후 실시된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 후 교구장을 중심으로 교구별로 모여 기도한 후 각기 배정된 지역에서 전도활동에 나선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학교별 노방전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성도들이 작성한 태신자 카드에 주일예배 시 헌금함에 넣거나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으면 된다.

#### ▼ 교구별 전도대상 지역

| 구분     | 교구           | 전도대상 지역             | 집결지        |
|--------|--------------|---------------------|------------|
| 제 1전도대 | 1, 2교구       | 영동시장                | 교회정문 옆 주차장 |
| 제 2전도대 | 3, 4교구       | 교회 뒷편, 보람은행 ~ 영동사거리 | 보람은행 앞     |
| 제 3전도대 | 5, 6교구       | 제일은행 뒷편 ~ 논현국민학교 주변 | 교회 정문 앞    |
| 제 4전도대 | 7, 8, 9교구    | 제일생명 ~ 강남역          | 교회 앞 (좌측)  |
| 제 5전도대 | 10, 11, 12교구 | 노보텔, 삼성호텔 부근        | 교회 앞 (우측)  |

##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개최

교회설립 6주년을 기념하는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작년부터 시작되어 이번엔 2회째를 맞는 전교인 성경암송대회는 이달 31일부터 11월 14일까지 보름간의 대장정에 들어가게 된다.

암송구절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까지 전체이며 탁아부와 유치부는 1장만 암송해도 된다.

일정은 10월31일(금)과 11월2일(주일)에 부서별 예선을 거쳐 11월7일(금) 본선에 들어가게 되며 여기서 선발된 결선자들이 11월14일(금) 결선을 벌이게 된다.

예선은 장년부, 소망부, 각부 교사의 경우 10월31일(금) 오후 7시 2층예배실에서 가지며 교회학교 학생은 11월 2일(주일)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치르게 된

다. 선발인원은 학생은 부별 1인씩 모두 6명, 장년부 등은 주점으로 편성된 3개조에서 조별 2명씩 모두 6명이다.

본선은 11월7일 오후 7시 교회 본당과 2층 예배실에서 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청년부를 1개조로, 또 장년부·소망부·각부교사를 1개조로 묶어 모두 2개조로 편성하여 실시된다. 각조에서 2명씩 모두 4명을 결선자로 선발한다. 탁아부와 유치부는 특별조로 편성된다.

결선자들은 11월14일(금) 오후 8시 2층 예배실에서 최종 결선을 벌여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2명 등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 및 발표는 11월16일(주일) 찬양예배시 거행될 예정이다.

#### 새 예배당 소식

### 건축허가 취득

착공은 내년 4~5월 경



새 예배당에 대한 건축허가가 났다.

교회는 6일 강남구청으로부터 강남구 대치동 208-5 외 2필지에 건축되는 새예배당에 대한 건축허가(허가번호 제 97-2-142)를 받았다. 허가 내용은 건축면적 1,577.86평방m, 지하면적 5,961.90평방m, 연면적 14,814.33평방m의 지상 8층, 지하 3층 규모의 건물로 지상 2, 3, 4층에 본당이 들어서고 1, 5, 6, 7층은 소예배실·교육실·기도실로, 그리고 8층은 친교실로 활용된다. 지하층은 기계실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에 건축허가를 받은 새 예배당은 세계 선교의 센터로서의 상징성을 나타내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사도요한이 밧모섬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일곱 교회의 비밀을 나타낸 일곱춧대의 상징성을 교회 외관설계에 부각시켰다.

새 예배당에 대한 설계를 담당한 정림건축 측은 이번엔 건축허가가 떨어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허가를 위한 계획설계 단계를 넘어 10월말까지는 기본설계를 끝내고 11월부터 약 4개월 간 실시설계에 들어가 2월말이면 시공도서작성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시방서 및 내역서를 작성하고 발주 준비가 완료되는 것과 함께 공사입찰을 거쳐 98년 4-5월경이면 새예배당에 대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강해설교 여호수아서

14장 5 - 15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와 중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오 세로 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을 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4:5-15)



이종운 목사

## 갈렙의 신앙

영화에서 주연도 중요하지만 조연의 역할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거장 앞에서 있던 갈렙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 시 여호수아 장군 옆에서 그와 더불어 항상 전쟁에 임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날 무렵, 그들은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장군은 땅 분배를 위한 준비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산악지대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여호수아에게 요청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니스는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속에 나타납니다(창15:18-21).

이렇게 볼 때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유대인들과 함께 애굽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그 아버지가 유다지파에 속한 자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1. 뚜렷한 역사 의식

우리는 민수기 13장에서 갈렙을 처음 만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탐할 정탐꾼 12명을 선발할 때 갈렙은 유다지파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이 되어 아직 바란 광야에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을 때 당시 갈렙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신실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갈렙에게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갈렙 장군은 처음부터 헤브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민13:21, 22). 유대인들에게 헤브론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이 깃든 그 땅을 새로운 유대 백성이 된 갈렙이 그곳을 보기를 원했고 자기가 그 땅을 상속받고 싶어했습니다.

헤브론에 대한 정탐꾼들의 견해는 갈렙과 달랐습니다. 그곳엔 키가 장대한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이들은 한결같이 보고하기를 그 땅은 참으로 좋은 곳이지만 정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13:27-33). 정탐꾼들이 본 그 백성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민13:30).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열두 명 중 열 명 즉 다수의 보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신앙을 저주하사 40년 간 그들로 광야에서 방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갈렙은 정탐 보고를 마친 후 모세에게 헤브론을 포함한 그 언덕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되고 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헤브론을 요청합니다(수14:12). 이것은 지난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7년간 가나안 정복기간 동안 갈렙이 가졌던 비전이었습니

다. 40년 광야생활 동안 갈렙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나른 소리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변하는 바다의 물 속에 있는 바위덩이처럼, 구름과 폭풍과 태양의 변화 속에서 눈 덮힌 산봉우리처럼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 2. 온전한 믿음

갈렙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 자기 전부를 던진 사람입니다.

갈렙은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주변의 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열 명의 보고와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각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신앙의 차이였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을 보았습니다. 거인 앞에서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땅의 거민이 오히려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오직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민14:7-9).

열 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힘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힘을 믿었습니다. 열 명은 두려워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치 승리자처럼 보고했습니다. 거인만 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작게 보였지만 크신 하나님을 본 이들에게는 그 거민들이 작게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능력 많으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 지상중계

## “교회와 국가”

이 글은 10월 6일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선후보와의 질의 응답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강의요지: 예수님은 소외 당한 민중의 편에 서서 불의한 권세와 투쟁하셨습니다. 또 교회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범세계적 입장을 표명하는 데 비해 국가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특별히 산업혁명 이후 민족주의를 옹호함으로써 이 둘은 대립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 박해와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정치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정치에 대해 교회는 비판자요 감시자요 격려와 조언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1세기는 종교를 포함한 문화적인 면이 강조될 것이며 세계의 국경은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많아진 전도의 기회만큼 교회의 책임도 커질 것입니다.

▷이종운 목사: 백여년 전 격변기에 기독교가 들어와 이 나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데 대한 평가와 21세기에 교회가 국가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김총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대중 후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을 깨우치려 한 복음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하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근대화과 국민 계몽, 사회복지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봅니다. 한편 지금 우리가 세계화의 조류에 순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우리 것을 재창조하는 문화적인 원동력이 되어왔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21세기는 군사력이나 정치력보다 정신력이 우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는 사회의 행동과 생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안보, 복리를 위한 노력에 보조를 맞추는 것과 아울러 부패하기 쉽고 남용되기 쉬운 정치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한편 북한동포 문제와 통일 이후 정신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교회가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경과 자연을 보전하는 일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타종교와의 형평성이라는 미명하에 군복 수를 감축하고 군승, 군신부 수는 증원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종역사를 살펴 보면 기독교회의 희생과 사명감으로 창설된 군목제도임에 틀림없는데 이를 과소평가 내지는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의 소리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군복수의 조절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종교간 대립적인 일로 이해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국가는 군복음화의 여건을 충실히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초부터 70년대까지 미신적 요소를 타파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전통문화'라는 미명하에 전근대적 미신행위가 되살아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미신과 전통문화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전통문화는 국민과 애환을 같이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이지만 미신은 일부에 의해 악용되어 혹세무민한 것으로 봅니다. 국가는 미신적 행위를 장려하거나 그 형식이라도 빌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의 근본적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종교가 국민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주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이 미신을 신봉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회의 책임이 더 크리라고 봅니다.

▶장애인을 위한 교통정책, 취업문제, 복지문제에 대한 귀하의 복안은 무엇이며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될 만한 정책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1할이 장애인이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경우 450만 명의 장애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이 많고 또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통계조차 정확히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에 관해서는 우선 일반인과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을 가진 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자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국가가 철저히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 아동은 정상적인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총재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조상의

묘를 옮기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카톨릭 신자로서 신앙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또 가족들이 어떤 종교를 신앙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상의 묘를 옮겼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리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과 전처, 그리고 제 누이동생의 묘가 매우 가파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보수해야 되고 찾아가갈 때마다 힘들어서 묘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풍수지리에 밝은 아들의 친구가 자리를 봐주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풍수지리 따위는 믿지 않지만 새로 옮긴 자리가 아늑하고 풍광이 좋아 마음에 흡족하기는 합니다.

지금 제 아내는 1962년 결혼할 당시 YWCA 전국연합회 총무였고 현재는 감리교 장로입니다. 저희 가족은 각자의 소신에 따라 성당이나 교회에 나가지만 한번도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한 적이 없으며 아들과들 손자녀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한 교계의 활발한 논의가 지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브라질의 휴마이타 교도소는 재범율이 지난 10년 동안 5% 미만이라는 경이적인 통계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와의 전쟁 선언보다는 사랑으로 교화하기 위해 사설 종교교도소 제도를 도입할 뜻은 없는지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싶으리 만큼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종교계에서는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일 김 후보께서 청와대에서 일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독교 신자가 다스리는 정책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간 다섯 번이나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것은 저를 도구로 쓰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시고 6년 간의 감옥생활에서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10년의 망명생활 속에서도 좌절치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적 정치인으로 반드시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

10월 23일~25일

지금까지 접수된 물품(10월 9일 현재)

| 접수번호 | 품목        | 수량 | 기증자(교구) |
|------|-----------|----|---------|
| 1    | 손목시계      | 3  | 이종윤     |
| 2    | 골프화       | 1  | 무명      |
| 3    | 귀금속       | 29 | 무명(4)   |
| 4    | 보온병 외 생필품 | 3  | 김유정(11) |
| 5    | 냉풍기       | 1  | 김진희(1)  |
| 6    | 조끼        | 91 | 이용자(4)  |
| 7    | 아동문학      | 16 | 김명숙(8)  |
| 8    | 신사복티켓     | 2  | 이동만(1)  |
| 9    | 액자        | 1  | 김미경(3)  |
| 10   | 다이아반지     | 1  | 임희준(3)  |
| 11   | 타자기       | 1  | 무명(11)  |

| 접수번호 | 품목     | 수량 | 기증자(교구) |
|------|--------|----|---------|
| 12   | 액자     | 2  | 무명(11)  |
| 13   | 우산     | 1  | 승명주(9)  |
| 14   | 금목걸이   | 1  | 박창강(5)  |
| 15   | 의류     | 34 | 신순우(5)  |
| 16   | 배꾸기 시계 | 1  | 박은미(3)  |
| 17   | 믹서기    | 1  | 박은미(3)  |
| 18   | 향나무성구관 | 1  | 박분옥(3)  |

○... 바자 수익금에는 10월 중 현금한 건축현금이나 건축착정현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11교구 어느 집사는 작성했던 현금을 앞당겨 땅 한 평 값인 1천 3백만원을 현금하기도.

### 우리 교구 일꾼들

- 1교구 = 회계:한정아 판매:금용숙 이영희 이은희 황재목 나중영  
 2교구 = 회계:서희자 판매:남태순 이순례 구동철 허상한 최광성  
 3교구 = 회계:김상욱 판매:이안순 김운자 홍재식 정동호 우지원 정용철  
 4교구 = 회계:유명석 판매:백혜숙 이현주 박우옥 최차순 손병석 임훈규  
 5교구 = 회계:김순희 판매:손재경 성수영 성순자 박창희 이구연 차광만  
 6교구 = 회계:김종자 판매:김정란 노정숙 정정숙 김시환  
 7교구 = 회계:박태희 판매:임윤자 이태원 윤운식  
 8교구 = 회계:한준홍 판매:이명아 김영미 김영식 서필영 강희자 유형석 정세형 조정식  
 9교구 = 회계:이순영 판매:금미선 김순자 박동식 윤성남 김영화 유신  
 10교구 = 회계:김신영 판매:박연순 신용식 김성준 이완형  
 11교구 = 회계:김양숙 판매:김혜련 김정수 전정순 김재우 성준모  
 12교구 = 회계:송숙영 판매:조선영 임상헌 김형택

### 등정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정호진·김유정 집사 가정에서 제공.
- ◆ 박순자 성도(3교구 대치3다락방)은 대치동에 내의전문점 '보디가드·돈앤존스'를 개업하고 감사예배

### 순례자 지령 300호!

지난 1991년 11월24일 교회설립과 동시에 출범한 <순례자>가 이번 호로 지령 300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순례자>는 부족하나마 문서선교의 도구로, 서울교회 성도들의 소식지로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순례자>는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순례길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소식, 간증, 수필, 일기, 시, 의견 등 어떤 분야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글을 기다립니다. 원고는 순례자편집실로 직접 또는 E-메일(천리안: pek9, 인터넷: pek9@chollian.dacom.co.kr)이나 디스켓(가능하면 완성형입력기나 매킨토시용으로 저장) 또는 팩스(516-9641)로 보내시면 됩니다.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97 비전2000운동을 위해
2.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3.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안수집사수련회에서

## 성장요인 · 저해요인

스데반회 회원들은 피택안수집사들을 초청하여 10월 2 - 3일 제주도에서 특별수련회를 가졌다. 67명이 참석한 이 모임에서 서울교회의 성장요인과 저해요인에 관해 토의한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 ▶ 성장요인

- ① 하나님의 은혜
- ② 목사님의 설교
- ③ 성도들의 뜨거운 열심과 헌신
- ④ 장로님들의 순종과 희생
- ⑤ 권사님들의 모범
- ⑥ 경건한 예배
- ⑦ 100교회운동 · 목회자세미나 · 방송전도 · 김치세미나 등 효과적인 전도전략
- ⑧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하는 교회상
- ⑨ 열렬한 기도와 찬양
- ⑩ 하나님중심 · 성경중심 · 교회중심의 목회철학

### ▶ 저해요인

- ① 지나친 계급의식과 공로 의식
- ② 부서이기주의
- ③ 기득권 세력(터세)
- ④ 전도회 활성화 미흡
- ⑤ 인재발굴의 형평성이 깨진 점
- ⑥ 지역장 · 다락방장 · 교사 교육의 부실
- ⑦ 교구 심방 결여
- ⑧ 새가족관리 미숙
- 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부족
- ⑩ 주차공간의 부족

### ■ 제 12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 5 10월 13일 - 제 1교시 / 로마서 강해 (이종운 목사)  
· 제 2교시 /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김종필 차민련 대선후보)
- 5 10월 20일 - 제 1교시 /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조순 민주당 대선후보)  
· 제 2교시 / 교회와 경제 질서(송자 명지대 총장)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           |                        |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 『성서강해』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 『성서강해』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 극동방송(HLKX 1188KHz)      | 『생명은 빛으로』 |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 『늘푸른 초상』  |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 『라디오 강단』  |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                         | 『새벽의 강단』  |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
| 주일 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수요 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기도회 | 오후 9시        |
| 새벽기도회 | 매일 새벽 5시 30분 |

### ■ 교회위치

